

'리더는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다' 출간

GIST아카데미 김명중 원장이 말하는 리더십

- 소통 부재의 시대, 다시 주목받는 관계 콘텐츠의 힘!
- 소통의 아이콘 '펍수 사장'의 리더십 철학을 담은 경영 지침서



▲ GIST아카데미 김명중 원장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GIST아카데미* 김명중 원장이 '리더는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다(성공을 주도하는 관계 콘텐츠의 힘)'를 10일 출간했다고 밝혔다.

이 책은 '펍수 사장'으로 유명한 전 EBS 사장인 GIST아카데미 김명중 원장의 리더십 철학을 담은 경영 지침서이다. 남녀노소 없이 모두에게 사랑 받아 온 거대한 팬덤 문화의 중심인 캐릭터 '펍수'의 성공은 세대 간 단절, 젠더 갈등 심화,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.

* GIST아카데미: GIST의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(2010년 개원)와 기후변화아카데미(2016년 개원)를 운영하고 있다.

'리더는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다'(한국교육방송공사 펴냄)는 리더십을 '공유'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류했다. △통찰의 공유 △권력의 공유 △마음의 공유 △경험의 공유 총 4부로 구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큰 흐름이기도 한 공유를 리더십에 적용해 경영 노하우를 담아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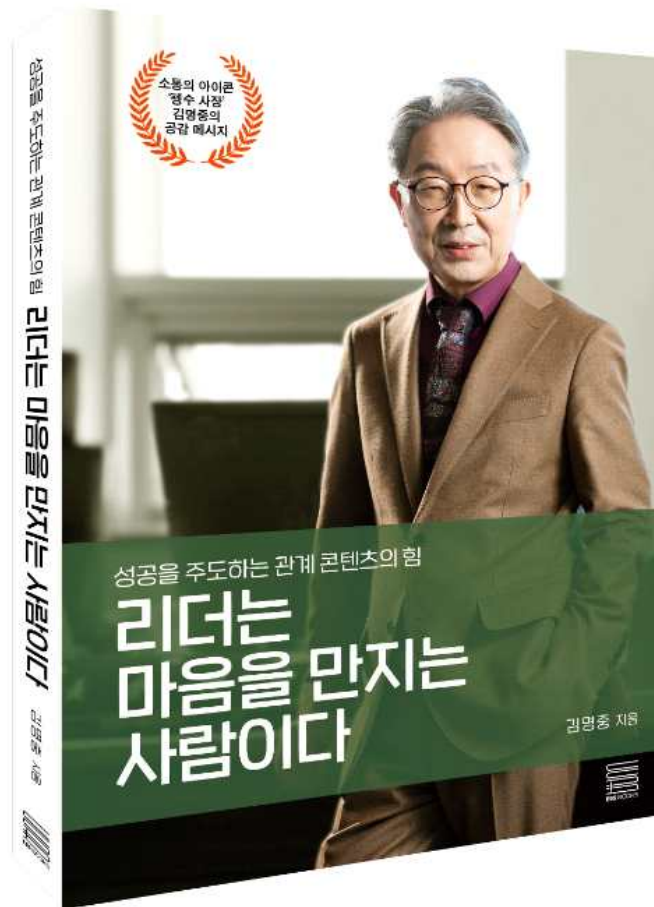
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김명중 원장이 이론과 실전 경험으로 눌러 쓴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마음에 대한 저자의 철학부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방송 현장에서 터득한 저자의 사유 깊은 에피소드까지 경험할 수 있다.

김명중 원장은 "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 왔다"며 "시대가 달라지며 개개인의 각자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결국에 직원들이 원하는 리더는 소통에 열려 있고, 경청을 즐겨하는 개방적 리더"라며 소통형 리더의 힘을 강조한다.

또 김 원장은 “조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리더의 덕목은 공유”라고 강조하며, “기성세대와 MZ세대, 여성과 남성, 재택과 출근 등으로 분리되었던 조직원들을 다시 하나의 목표로 묶는 공유의 리더십을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”고 소회를 밝혔다.

한편 김명중 원장은 KBS 위성 방송과 아리랑TV의 출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, 제10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, 아리랑TV 부사장을 지냈다. EBS 사장 재임 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, ‘핑수’를 성공시켰다.

또한 국내 최초로 세계 석학이 대거 출연하는 고품격 강연 프로그램 <위대한 수업, 그레이트 마인즈>를 론칭해 공영방송의 글로벌 행보를 과감하게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 현재 GIST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다.



▲ '리더는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다(성공을 주도하는 관계 콘텐츠의 힘)' 표지